



광남일보



전남 출신 한창훈·박정보, 치안정감 승진
경찰 고위직 인사...치안감 고병석·김영근도

농협은행 광주본부, 전통시장 현장학습 지원
학생 2300명 대상 은누리상품권 3000만원 기부

서해안철도 국정과제 실현 공동 대응
함평·영광군,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복싱 임애지, 韓 여자 최초 대기록
파리올림픽 이어 세계선수권 동메달

조간 제792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음력 7월 24일)



을 가을, 전남 전역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문화·산업·스포츠·역사 재현이 이어지며 수십만 명의 발걸음이 남도를 향할 전망이다. 사진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나주 해피니스CC, 명랑대접축제, 2025국제농업박람회,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모습.

축제·스포츠 향연...가을 전남이 뜨겁다

농업박람회·미식산업박람회 등 국제 행사 잇따라
배구·바둑·철인 3종 경기...LPGA 정규투어 개최
문화·스포츠·관광 융합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가을로 접어드는 9월~10월 전남 전역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문화와 산업, 스포츠와 역사 재현이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연이어 펼쳐지고, 수십만 명의 발걸음이 남도를 향할 전망이다.

예술적 상상력, 농생명 산업, 글로벌 미식, 세계 정상급 스포츠 무대, 그리고 호국정신을 기리는 전통축제까지 맞물리며 올가을 전남은 '매가 시즌'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말까지 국제수목비엔날레와 국제농업박람회,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LPGA 정규투어, 명랑대접축제 등 굵직한 행사가 전남 일원에서 잇따라 펼쳐진다.

먼저 9월 들어 가장 먼저 여수를 무대로 한 스포츠 열전이 시작됐다. 13일부터 28일까지 진남체육관에서는 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가 진행된다.

남녀부 V리그 14개 구단과 해외 초청

팀이 참가해 16일간 경기를 치른다. 평균 3000명 관중을 전제로 82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며, 관람객 증가와 함께 숙박·교통·식음료 수요가 지역 곳곳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는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일원에서 명랑대접축제가 펼쳐진다. 판옥선을 형상화한 무빙스테이지와 특수효과를 활용한 디지털 액션활극이 명랑해전을 재현하고, 진도대교 일원에서는 출정 퍼레이드와 군함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승전의 감동과 현대적 연출이 어우러지며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은 전남 대표 해양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같은 시기 구례에서는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가 열린다. 26일부터 29일까지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를 완주하는 극한 레이스에 국내외 900여 명이 참가한다. '철인 3종의 성지'로 불리는 구례는 철저한 안전 관리 속에서 세계선수권 진출권이 걸린 대회를 운영하며 글로벌

전남지역 축제·스포츠 행사 일정		
행사명	장소	기간
2025 국제수목비엔날레	목포 등	8.30~10.31
NH 프로배구대회	여수	9.13~28
명랑대접축제	불동목	9.19~21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구례	9.26~29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신안·영암	9.29~10.2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목포	10.1~26
LPGA BMW 챔피언십	해남	10.16~19
2025 국제농업박람회	농업기술원	10.23~29
KLPGA 해피니스CC오픈	나주	10.24~27

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9월과 10월의 경계에서는 전남의 지적 매력도 빛난다.

신안·영암에서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열린다.

한·중·일·대만의 정상급 기사 16명이 참가하는 프로 대국과 함께 1000여명이 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한다. 해외 선수단 100여명은 남도의 문화와 관광을 함께 체험하며, 대회는 전 세계 바둑 팬들에게 생중계된다. 바둑의 묘수와 남도의 풍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다.

10월에 들어서면 축제의 외연은 한층 넓어진다. 목포에서는 1일부터 26일까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열린다. '남도 음식문화큰잔치'가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격상된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40개국이 참여한다. 발효문화와 제철 식재료를 주제로 한 전시, 해외 셰프 경연, 월드미식 파티가 마련돼 남도의 맛과 세계 미식이

교차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131개 기업이 참여하는 K-푸드 산업관과 수출상담회는 산업적 성과까지 노리며, 150만명 이상 관람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중순에는 세계 정상급 골프가 전남을 찾는다.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린다. 세계 랭킹 상위 70위 이내 선수들이 출전하는 국내 유일 LPGA 정규대회다. 바다와 맞닿은 씨사이드 코스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전 세계 170여개국, 5억7000만 가구에 중계된다. 갤러리 5만~6만명이 해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숙박·교통·관광 소비가 급증할 전망이다.

같은 시기 나주에서는 KLPGA 해피니스CC 오픈도 열린다. 10월 2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 대회는 총상금 10억 원 규모의 정규 투어 신규 대회로, 프로 스포츠 대회의 저변을 더욱 넓힌다.

예술과 농업의 현장은 10월 후반기로 이어진다. 제4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목포·진도·해남에서 10월 31일까지 열린다. '황해를 넘어서'를 주제로 20개국 8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목의 뿌리와 확장, 동서양 교류를 담아낸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폐회 ‘국제 스포츠 도시 광주’ 위상 입증

76개국 731명 선수단 10개 종목 금빛과녁 활시위
대한민국, 종합 순위 1위...시민 참여 대회로 완성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지난 12일 여자 리커브 개인 결승전을 끝으로 8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세계 76개국 731명 (선수 501명, 임원 등 23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리커브와 컴파운드 10개 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겨룬 이번 세계양궁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종합순위 1위, 메달 합계순위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 번 세계 최강 양궁 강국의 저력을 입증했다.

▶관련기사 12면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 최용희가 동메달, 리커브 혼성 단체전에서 김우진·안산이 은메달,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는 김우진·김제덕·이우석이 금메달, 리커브 여자 단체전에서는 임시현·강채영·안산이 동메달, 리커브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제덕이 동메달,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는 강채영이 금메달, 안산이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당초 일부에서는 한국의 전 종목 석권을 예상하기도 했으나, 경기 특성상 단 한 발, 1점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만큼 곳곳에서 이변이 연출됐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결과는 오히려 대회의 긴장감과 흥미를 높이며 세계 양궁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부각시켰다.

광주시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세계양궁선수권대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국제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을 입증했다. 특히 대회 조직위원회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호텔 숙박업소 점검과 대테러 안전교육까지 실시하면서 대회기간 동안 사전·사중이 대회를 마무리했다.

도 광주시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통해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5·18민주광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번 대회 결승전은 광주의 상징이자 80년 5월의 기억을 간직한 5·18민주광장에서 치러졌다.

경기장 너머로 보이는 무등산과 전일빌딩245, 5·18민주광장의 시계탑과 분수대 등이 경기장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6일간의 결승 경기는 74개국 이상에 생중계됐다. 이는 개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로 이어졌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2일부터 2차소비쿠폰 인당 10만원 지급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MISSION INFO.SSIBLE

개인정보 지켜LOCK